

# 엄현경 · 강은탁 · 이채영 KBS '비밀의 남자' 주연 확정

### 8월 말 방송 예정...일곱살 지능 남자의 복수극

### 캐릭터 싱크로율 200% 연기와 젊은 배우들

일일극의 킹과 퀸이 만났다. 강은탁, 엄현경, 이채영이 오는 8월 말부터 매일 저녁 안방극장을 책임진다.

'일일극의 귀재'라 불리는 이들은 '비밀의 남자'로 손을 잡고 색다른 일일극을 완성해나갈 예정이어서 기대감을 높인다.

오는 8월 말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저녁 일일드라마 '비밀의 남자' (극본 이정대 / 연출 신창석) 측은 6일 "강은탁, 엄현경, 이채영 등 '비밀의 남자'를 이끌어갈 남녀 주인공들의 캐스팅을 완료하고 활

영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밝혔다.

'비밀의 남자'는 사고로 일곱살의 지능을 갖게 된 한 남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을 마주하며 복수를 위해 질주하는 이야기다. 그를 둘러싼 두 여자의 사랑과 욕망, 인물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색다른 일일극의 지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비밀'을 품은 남자 이태풍 역에는 강은탁이 낙점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태풍은 어린 시절 사고로 7살 지능을 갖게 된 순수한 청년이다. 하지만 그의 재산을 노

리는 주변 인물들로 인해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고,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인물로 변신하게 된다. 이에 강은탁은 해맑은 미소를 소유한 순수한 청년이자 진실을 밝히고 복수를 위해 사는 새로운 인물로 1인2역 같은 연기를 소화할 예정이다.

'일일극의 황태자'로 불리는 강은탁은 신창석 PD와 손을 잡고 '끝까지 사랑' 이후 2년 만에 일일극으로 복귀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 어느 때보다 연기 스펙트럼이 넓은 역할로, 황태자 강은탁의 저력을 확인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엄현경과 이채영은 태풍과 어린 시절부터 동네에서 함께 자란 이란성 쌍둥이 자매이자 그의 인생에

큰 획을 그은 두 여인으로 캐스팅됐다.

엄현경은 '첫사랑의 아이론' 여자 주인공 한유정 역을 맡아 순수 멜로의 여인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유정은 한유라의 이란성 쌍둥이 동생으로, 첫사랑 태풍을 기다리는 지고지순한 여인이자, 가족에까지 품은 인물이다.

그간 많은 드라마에서 강렬한 악역으로 활약해온 엄현경이 그려나갈 지고지순한 여인상의 모습에 기대감이 쏠린다.

이채영은 '비밀의 남자'에서 '악녀의 끝판왕'을 확인시켜줄 전망이다. 이채영이 맡은 한유라는 유정의 이란성 쌍둥이 언니이자 동생과 전혀 다른 욕망과 야망의 화신이다. 신분 상승을 꿈꾸며 태풍



이채영은 '비밀의 남자'에서 '악녀의 끝판왕'을 확인시켜줄 전망이다. 이채영이 맡은 한유라는 유정의 이란성 쌍둥이 언니이자 동생과 전혀 다른 욕망과 야망의 화신이다. 신분 상승을 꿈꾸며 태풍을 이용하는 인물로, 태풍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다. '비밀의 남자' 측은 "극 중 캐릭터와 200% 싱크로율을 보이는 연기와 젊은 배우들이 캐스팅돼 일일극 사상 최고의 호흡을 보여줄 예정이다.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오는 8월 말 방송 예정. 뉴스 1

## 정은지만의 힐링 감성...새 앨범 타이틀곡 '어웨이'

### 1년 9개월 만에 컴백...15일 미니앨범 발표



그녀 에이핑크 정은지가 솔로 앨범 트랙리스트와 첫 이미지 티저를 공개했다.

소속사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5일과 6일 0시 에이핑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팬카페를 통해 미니 4집 '심플(Simple) 트랙리스트와 첫 이미지 티저를 차례로 선보였다.

정은지의 새 앨범 타이틀곡은 '어웨이(Away)로 낙점됐다. 정은지가 직접 작사한 '어웨이'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과 스스로를 생각하며, 바쁜 일상 속 공허한 마음을 돌아보면서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인기 작곡가 김연서, 밍지선과 함께 탄생시킨 곡으로, 정은지만의 파워풀한 보이스로 시원하고 신나는 느낌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어웨이'를 포함해 '심플 이즈 더 베스트(Simple is the Best)' '후(Who)' '두고 왔나 봐요' '보습의 중요성' '느리게 가는 세상'까지 총 6곡이 수록됐다. 정은지가 전곡 작사했으며, 선우정아, 10cm, 소수빈과 이현영 등 실력과 작가진이 힘을 보태 신선한 명곡들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함께 공개된 이미지 티저 속 정은지는 모래 언덕을 배경으로, 페미닌 스타일링과 심플한 화이트룩이 대비되는 분위기를 완벽 소화했다. 다양한 포즈와 은은한 미소로 한층 성숙해진 면모와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로 정은지만의 '힐링 감성'을 전했다.

한편 정은지는 오는 7월 15일 미니 3집 '해화(薔花)' 이후 1년9개월 만에 솔로로 돌아온다.

이'를 포함해 '심플 이즈 더 베스트(Simple is the Best)' '후(Who)' '두고 왔나 봐요' '보습의 중요성' '느리게 가는 세상'까지 총 6곡이 수록됐다. 정은지가 전곡 작사했으며, 선우정아, 10cm, 소수빈과 이현영 등 실력과 작가진이 힘을 보태 신선한 명곡들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함께 공개된 이미지 티저 속 정은지는 모래 언덕을 배경으로, 페미닌 스타일링과 심플한 화이트룩이 대비되는 분위기를 완벽 소화했다. 다양한 포즈와 은은한 미소로 한층 성숙해진 면모와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로 정은지만의 '힐링 감성'을 전했다.

한편 정은지는 오는 7월 15일 미니 3집 '해화(薔花)' 이후 1년9개월 만에 솔로로 돌아온다.

## 이학주 주연 '어서오시게스트하우스'

### 살벌한 악역 캐릭터→열정 지수 200% 최준생



배우 이학주 주연 영화 '어서오시게스트하우스'가 8월 개봉을 확정 짓고,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학주의 소속사 SM C&C는 6일 이학주가 주연을 맡은 '어서오시게스트하우스'가 8월 개봉하는 사실을 알리며 영화 속 이학주의 모습이 담긴 스틸 컷을 공개했다

'어서오시게스트하우스'로 스크린 복귀를 확정지은 이학주는 숨 막히는 살벌한 악역 캐릭터가 아닌, 뭐든 열심히 하지만 되는 일은 없는 열정 지수 200% 최준생 준근으로 완벽한 연기 변신을 꾀할 예정이다.

이학주는 '검은 사제들'의 원작 단편영화인 '12번째 보조사제'를 통해 '독립 영화계의 강동원'으로 불리며 떡잎부터 남다른 면모로 주목받았다.

영화 '왓칭' 이후 오랜만에 단독 주연작으로 스크린 컴백을 앞두고 있는 그는 이번에는 친근하고 허망미 넘치는 20대 청년의 새로운 모습과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어서오시게스트하우스'는 서평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 알바를 시작한 대학교 5학년 최준생 준근이 화합에 양양 바다를 걷고 급수지 서퍼와 막무가내 서핑 배틀을 치며 벌어지는 깽기 폭발 청춘 버스터로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관객상 수상은 물론 서울독립영화제에도 초청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루 인정받은 한예중 출신 심오한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이 영화는 요즘 청년들이 겪고 있는 꿈과 취업 사이에서의 고민을 담은 현실 밀착형 스토리에 서핑이라는 신선한 소재를 결합시켜 '관객들이 찾던 새로운 독립영화'의 탄생을 알렸다.

유쾌하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빚어내는 환상적인 케미스트리와 센스 넘치는 만화적인 연출 등이 영화제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과 공감을 이끌어낸 바 있어 더욱 기대감을 준다.

개봉 소식과 함께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서평도 취업도 삼질중'이라는 현실적이면서도 '웃픈' 카피로 스토리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모은다.

서핑 보드에 의해 시원하게 부서지는 파도 파편은 뜨거운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함을 선사하며 영화가 보여줄 통쾌하고 푹한 매력을 더해주고 있다.

### 'K팝 축제' 제26회 드림콘서트, 비대면 온라인 개최

가상의 월드투어 기획...생생한 현장감 전달

전 세계 K팝 팬들을 위한 대한민국의 축제 '제26회 드림콘서트 커넥트:디'(CONNECT:D)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6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에 따르면 '제26회 드림콘서트 커넥트:디'는 오는 25일과 26일 각각 오후 9시(한국시각 기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제26회 드림콘서트 커넥트:디'는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임백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공동 주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후원하며 현대오일뱅크,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가 후원, (재)한

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협력하며 디지털소니이 협찬한다.

올해 드림콘서트는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팬들의 사랑 속에 성장해 온 K팝 스타들이 전 세계 팬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는 사회 공헌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연제협은 올해 '제26회 드림콘서트 커넥트:디'를 통해 가상의 월드투어를 기획하고 있다.

AR, VR, 4K UHD, 멀티캠 기술을 활용하고 세계 최초 'EX 3D 사운드' 등을 통해 지구촌 곳곳의 팬들에게 드림콘서트의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계획이다.

연제협에 따르면 '제26회 드림콘서트 커넥트:디'는 유튜브 'The K-POP'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양일 관람권은 5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드림콘서트 수익금 일부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잠재적 방문 관광객인 전 세계 한류 팬들의 한국 여행에 대한 갈망을 달래고 코로나19 이후 한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자 이번 드림콘서트에 공중 주최사로 참여한다.

콘서트 개최에 필요한 제작지원과 전 세계 32개 해외지사와의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한국 관광에 대한 안전 홍보는 물론 이번 콘서트의 뜻깊은 의미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강다니엘, 미니 2집 '마젠타'...8월 3일 컴백

데뷔 후 첫 발라드 도전

가수 강다니엘이 8월 3일 컴백을 확정했다.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강다니엘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마젠타(MAGENTA)' 컴백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앨범 발매 소식을 알렸다.

공개된 컴백 트레일러 영상은 그루브하면서 심장을 뛰게 하는 몽환적인 배경음에 시안(Cyan) 색

을 띠는 '색의 3원색' 밴다이어그램 형상이 회전하며 시작된다. 이어 두 개의 원형이 얽힌 밴다이어그램으로 변형, 여러 가지 색으로 변환하다 마침내 마젠타색(심홍색)로 바뀌며 오는 8월 3일이라는 컴백 날짜와 함께 마무리됐다.

소속사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지난 3월 발매한 첫 번째 미니앨범 '사이언(CYAN)'에 이어 약 5개월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며 8월 컴백 주자로 나선다. 강다니엘만의

색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컬러(COLOR) 연작 시리즈의 첫 번째 키 컬러(Key color)였던 '사이언'에 이어 두 번째 키 컬러가 마젠타로 정해지며, 이를 중점에 둔 음악적 색깔에 궁급증이 높아진다.

강다니엘은 지난해 7월 '컬러온미'(color on me)로 솔로 데뷔, 이후 디지털 싱글 '터칭'(TOUCHIN)과 첫 번째 미니앨범 '사이언'을 연이어 발매하며 남자 솔로 가수로서 입지를 다졌다.

## 백지영, 14일 신곡 발표...애절한 감성 극대화



가수 백지영이 감성 짙은 여름을 선전한다.

백지영 소속사 트라이어스는 6일 "오는 14일 오후 6시 백지영이 신곡 '거짓말이라도 해서 널 보고 싶어'를 발매한다"고 밝혔다.

신곡 '거짓말이라도 해서 널 보고 싶어'는 지난해 12월 음원 차트를 율리히한 백지영의 '다시는 사랑하지 않고, 이별에 아파하기 싫어'를 작곡한 도코와 의기투합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한껏 모으고 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번 신곡 뮤직비디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

리즈 '인간수업'으로 연기력을 인정 받은 배우 남윤수가 출연한다. '인간수업'에서 과거에 역으로 현실감 있는 연기를 선보인 남윤수는 신곡 뮤직비디오에서 가구 공방 사장으로 변신해 헤어진 연인에 대한 후회와 그리움을 섬세한 감정선으로 그려낸다.

트라이어스는 " '거짓말이라도 해서 널 보고 싶어'는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애절함과 진한 감성이 노래로 들었을 때 더 극대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여자)아이들, 첫 단독 콘서트...“영원히 잊지 못할 것”



그들 (여자)아이들이 첫 번째 단독 콘서트 '아이랜드 : 후 엠 아이(I-LAND : WHO AM I)'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여자)아이들은 지난 5일 오후 3

시 2020 온라인 콘서트 '아이랜드 : 후 엠 아이'를 개최하고 글로벌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히트곡 '라이온(LION)'과 '하(하)'으로 공연의 포문을 연 (여자)아이들은 "꿈이었던 첫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됐다. 무척 떨리고 긴장도 되지만 멋진 무대가 많으니 기대 많이 해달라"라며 데뷔 후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 소감을 전했다.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태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가깝게 소통했다.

이번 공연에서 (여자)아이들은 '메이즈(MAZE)', '왓츠 유어 네임(What's Your Name)' '달러(\$\$\$)' 등 그간 팬들이 보고 싶어했던 수록곡 무대는 물론 이번 공연을 통해 최초로 공개하는 무대까지, 오직 '아이랜드 : 후 엠 아이'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들로 글로벌 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